

발 간 사

「환경법연구」는 우리나라 환경법과 관련 정책의 산 증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환경법연구」와 한국환경법학회의 오늘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공헌을 해 주신 역대 회장님들에게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본인이 이와 같이 긴 역사와 오랜 전통을 가진 「환경법연구」의 제26권 3호 발간사를 쓰는 것은 매우 영광된 일이고, 기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환경법연구」와 인연을 맺은 시기는 상당히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즉, 본인이 대학에 처음 몸을 담기 시작한 1970년대 말부터 한국환경법학회 회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본인이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1980년대 후반부터는 본 학회의 연구이사를 맡은 바 있고, 그 후 다년간 총무이사를 맡으면서 본 학회와 깊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작년에는 본인이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맡은 관계로 한국환경법학회를 잠시 떠나 있었습니다. 1년 동안의 공백을 거친 후 유서 깊은 본 학회의 회장직을 다시 맡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고향에 다시 돌아온 기분을 느낍니다.

본인이 연구이사, 총무이사로서 활동할 때 느꼈던 바를 회장으로서 현실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진력할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양보다 질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우리는 21세기 환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환경에 관한 법과 정책은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 왔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환경보호에 상당히 기여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환경을 둘러싼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교토의정서의 발효에 따른 국내법의 대응 방안 모색, 주변국과의 환경협력의 강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재검토 및 주민참가를 위한 법적 절차의 확립방안 등에 관한 연구 및 검토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바쁜 연구생활에도 최선을 다해주신 전경운 출판이사님과 그 밖에 집행부 여러 이사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 9월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박 수 혁